



## 미 증시, 인플레이션 불안, 침체 우려 등으로 급락

### 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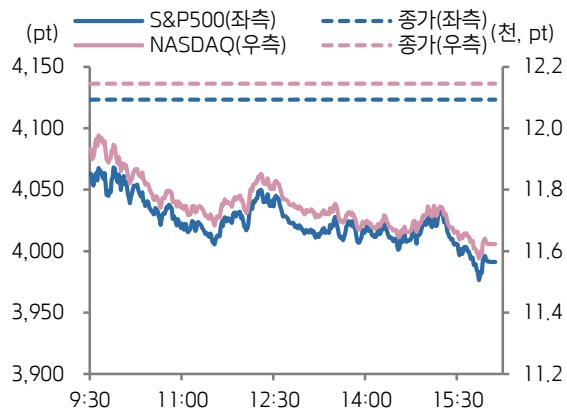
9일 (월)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불안 속 미국 금리 급등세, 중국 상해 코로나 락다운 강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확대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급락.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증시에서 3.2%를 상회했고 이는 미국 성장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S&P500 지수는 1.6% 하락 출발. 이날 중국 상해 락다운이 다시 강화되었다는 소식, 금주 발표 예정인 미국 CPI 지표를 앞둔 경계심리 등도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장중 낙폭 확대. S&P500은 주요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4,000pt를 하회하면서 마감(-132pt, 3,991.24pt)(다우 -1.99%, S&P500 -3.2%, 나스닥 -4.29%, 러셀 2000 -4.21%).

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급위축되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결국 하락 전환했지만, 애플(-3.3%), 아마존(-5.2%), 테슬라(-9.1%), 엔비디아(-9.2%) 등의 대형 기술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 마감. 이날 필수소비재(+0.1%)를 제외하고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, 에너지(-8.3%), 부동산(-4.6%), 경기소비재(-4.3%)의 낙폭이 가장 컸음. 최근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되었던 헬스케어(-2.6%), 부동산(-4.6%)도 하락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.1%, 다우 운송지수는 2.9% 급락.

중국 무역지표는 시장 예상대비 견조하게 발표된 가운데, 유럽 센트릭 투자자 기대지수는 둔화(-22.6pt vs 전월 -18pt), 미국 4월 컨퍼런스보드 고용동향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둔화(120.2pt vs 전월 120.8pt). 이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50bp 금리 인상이 충분히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지만,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, 2~3 번의 50bp 금리 인상 이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.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%수준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발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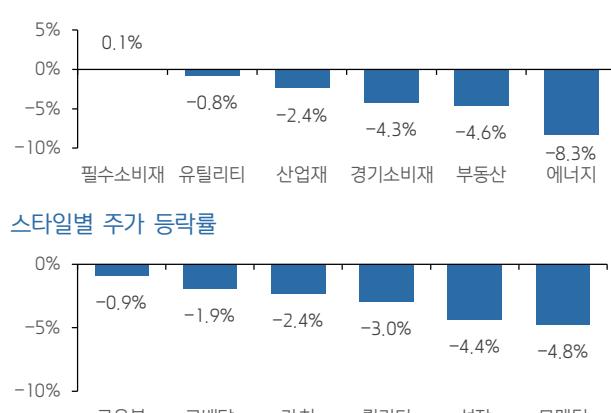
종목별로 실적을 발표한 팔렌티르(-21.3%)는 실적 및 가이던스 부진으로 주가 급락, 우버(-11.6%)는 고용 및 마케팅 비용 축소를 발표하면서 주가 급락. 포드(-5.9%)는 주말 사이 리비안(-20.9%) 주식 대량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. 한편 바이온텍(+3.1%)은 백신 만파 호조에 힘입어 실적 호조를 기록하며 상승.

### 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3,991.24	-3.2%	USD/KRW	1,274.20	+0.12%
NASDAQ	11,623.25	-4.29%	달러 지수	103.74	+0.07%
다우	32,245.70	-1.99%	EUR/USD	1.06	-0.04%
VIX	34.75	+15.1%	USD/CNH	6.76	+0.02%
러셀 2000	1,762.08	-4.21%	USD/JPY	130.41	+0.09%
필라. 반도체	2,829.10	-5.13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4,470.36	-2.89%	국고채 3년	3.072	-7.3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3.420	+0bp
Eurostoxx50	3,526.86	-2.82%	미국 국채 2년	2.594	-13.7bp
MSCI 전세계 지수	623.77	-3.09%	미국 국채 10년	3.034	-9.3bp
MSCI DM 지수	2,671.83	-3.27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014.68	-1.63%	WTI	103.09	-6.09%
MSCI 한국 ETF	64.01	-3.21%	금	1858.6	-1.29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###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3.21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2.83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90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276.1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### 주요 체크 사항

- 미국 증시 폭락에 따른 코스피의 연저점 하회 가능성
- 장중 투매 물량 출현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여부
- 강원랜드, SK 텔레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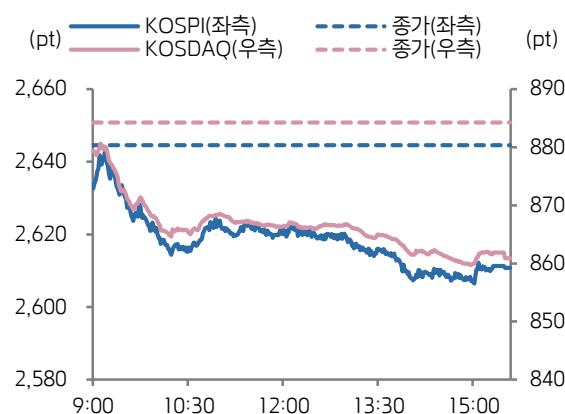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최근 증시 폭락의 주요 원인은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“일시적”이라고 오판한데 이어서 5 월 FOMC 이후 연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높아졌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음. 금번 FOMC 에서 연준이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통제 밖 영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함에 따라,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50bp 이상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지배적인 상황. 9 일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50bp 인상만으로도 공격적이며, 향후 2~3 번의 50bp 인상 뒤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사태 진화성 발언을 했음에도, 장중 미국 증시의 낙폭은 오히려 확대됐다는 점 역시 연준에 대한 불신과 수요 부진으로 인한 침체 리스크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 현재 나스닥은 고점대비 약 27% 가량 급락하면서 2020년 판데믹 당시의 하락폭(약 -30%)에 준할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.

물론 지난해 말 이후 반등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, 완전 고용인 미국 고용시장, 리오프닝 수요 등을 감안 시 침체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판단. 다만, 현재의 시장 심리를 보면 실현 확률이 낮은 악재성 재료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, 호재성 재료 역시 악재로 해석하려 들 정도로 투자심리가 냉각됐다는 것이 문제. 결국 11 일(수) 예정인 4 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(예상 8.1% YoY, 전월 8.5%)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회복되면 증시 불안도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, 그 전까지는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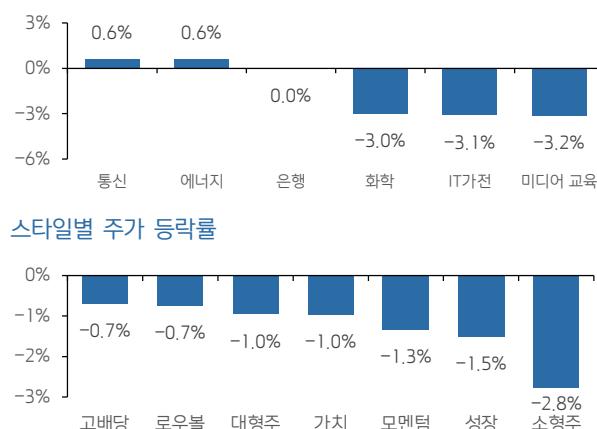
금일 국내 증시도 고 인플레이션 장기화 불안, 연준의 긴축 우려 등에 따른 미국 증시 폭락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. 장중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인식됐던 2,600 선이 붕괴되며 연저점(2,590pt 선)을 하회할 수 있는 만큼, 그 과정에서 투매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. 다만, 현재의 시장 급락은 견조한 기업들의 실적, 증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상황을 고려 시 과매도 성격이 강함. 이러한 과매도 영역에서는 약간의 호재성 재료 출현 만으로도 주가 복원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, 현 시점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.

### 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**Compliance Notice**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**고지사항**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.